



09-01 (통권 330호)
2009.01.0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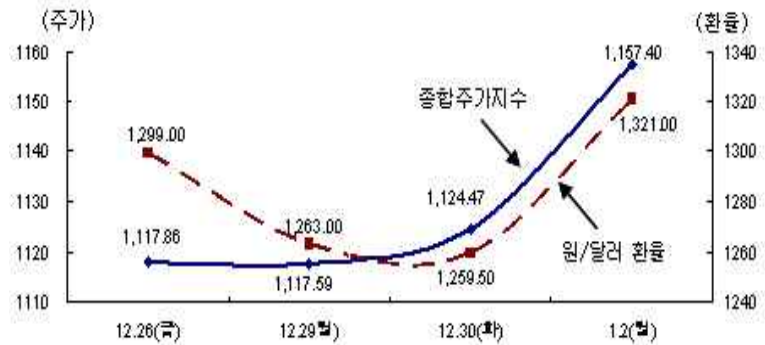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2009년에도 희망은 있다.
- 국내외 10대 희망요인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26~01.0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09년에도 희망은 있다 - 국내외 10대 희망요인	1
주간 경제 동향	22
□ 실물 부문 : 경상수지 2달 연속 흑자	22
□ 금융 부문 : 원화 환율 재 급등	2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이 부 형 연구 위 원 외 (3669-4011, lb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09년에도 희망은 있다.

- 국내외 10대 희망요인

2009년에도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경제도 내·외수 동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는데, 이 가운데 10대 희망요인을 선정하였다. 향후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계 희망요인

첫째, 역사상 최대 경기 부양책 효과가 기대된다. 세계 각국들이 세계 명목 GDP(54.7조 달러)의 12% 수준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예정대로 신속히 진행된다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및 국내 경제 회복 시기가 단축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세계 경제 공조와 Great Moderation(경기 사이클의 단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G20 금융위기 공조 합의, 강도 높은 부실금융기관 구제, 글로벌 금리 인하 등 전 세계적인 정책 공조가 일어나고 있다. 또 세계 경제는 경기 하강 기간이 단축되고 경기 확장 기간은 확대되는 Great Moderation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위기의 단기 진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셋째, 세계적인 녹색 투자 붐이 일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Green New Deal 정책, 일본 'Cool Earth 50' 등 환경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투자 붐이 일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진일보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될 것이다.

넷째,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 경기 동반 침체에 의한 수요 부진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무역수지, 기업 채산성 등의 개선 뿐 아니라 국내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등 국내 경제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다섯째, 아프리카라는 새로운 신천지가 부상하고 있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가 평균 5%대 이상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플랜트 시장 확대 및 수출 시장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 국내 희망요인

첫째,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세계 1등 상품군들이 등장하고 있고, 휴대폰, 자동차, 철강 등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사업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경우 제조업이 우리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둘째,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수출 지역의 다변화와 수출 상품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이나 플랜트와 같은 수주 산업이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수출 시장의 다변화 진전은 주요 수출 지역의 경기 침체에 따르는 수출 감소효과를 경감 시켜 줄 것이며, 꾸준한 기술 경쟁력 제고 노력은 신시장 개척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셋째, 4대강 유역 개발과 관광산업 대개발과 같은 한국형 녹색뉴딜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한 '한국형 녹색 뉴딜' 정책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환기시킬 뿐 아니라 신기술 및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R&D 혁신 역량의 결집으로 기술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R&D투자 비중은 2006년 현재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특허 출원 및 등록, 논문 발표 건수, 기술수출액 등과 같은 성과 뿐 아니라 세계 1등 상품수도 2004년 78개에서 2007년 127개로 급증하였다. 결국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국가 R&D 혁신 역량이 한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될 것이다.

다섯째, 풍부한 한민족의 해외 역량이 존재한다. 현재 전 세계 180여개국에 1만 7천개 이상의 동포기업(한상; 韓商)이 존재한다. 중국의 華商과 인도의 印商처럼 한국도 이러한 한상네트워크를 잘 활용한다면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 성장의 교두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I. 세계

□ 역사상 최대 경기 부양책 효과

- 세계 각국들이 역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어, 이번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 동반 침체 현상이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경제 회복 시기도 그 만큼 단축될 가능성이 큼
-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은 각국 GDP 대비 10% 이상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종합해보면 세계 명목 GDP(54.7조 달러)의 12% 수준에 이룸
 - 미국 : FRB와 재무부를 통해 GDP(13.8조 달러)의 23.3%에 달하는 총 3조 2,290억 달러를 투입하여 경제 위기 조기 진화 의지를 보임
 - 유럽 : 은행 간 채무 보장 및 부실은행 국유화, 감세 및 재정지출 등을 통해 GDP(8.9조 유로) 대비 17.1%인 1조 5,273억 유로를 투입
 - 일본 : 경기부양을 위해 GDP(약 516조 엔) 대비 11.9%인 61조 6,000억 엔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중 재정재출은 총 17조 엔으로 GDP의 3.3% 규모임
 - 중국 : 중국 국무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10대 조치를 발표하고 2009~2010년간 총 4조 위안(800조 원)을 투입하는 조치 마련. 이는 2007년 중국의 명목 GDP(24조 6619억 위안)의 16.2%에 해당하는 규모
 - 한국 : 재정지출 규모는 2008년에서 2012년 까지 51조 3,000억 원으로 2007년 명목 GDP 901조 1,886억 원 대비 5.7% 규모
- 각국들의 경기 부양책이 예정대로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세계 경기 회복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한국은 수출 경기 조기 회복 및 경기 부양책에 의한 내수 진작 효과에 힘입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됨
 - 신속한 초기 대응,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 국제금융시스템의 재구축 등의 노력이 경주되고 있어, 세계 경기의 조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 단,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 등 경기 상황에 대한 불안심리가 고조되고 있어 경기부양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임

< 미국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내역 >

(단위 : 억 달러)

기관	지원 대상	내용	지원 금액
FRB	베어스턴스	JP모건 체이스에 인수자금 지원	290
	AIG	구제금융	1,100
	단기금융시장 지원	머니마켓투자펀드기구(MMIF)를 통한 만기 90일 이내 CP, CD매입	5,400
	모기지 관련	페니메이, 프레디맥, 지니메이의 보증채권 구입	6,000
	소비자 대출	학자금, 자동차, 신용카드 및 중소기업	2,000
	주택 및 소비자대출	주택, 소비자, 중소기업 신용시장	8,000
미국 재무부	페니메이, 프레디맥	일시적 국영화	2,000
	미국 내 전 금융사	MMF 지불 보증	500
	미국 내 전 금융사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 인수, 빅3 자동차 회사 구제금융	7,000
합 계			32,290

자료 : 미국 FRB, 재무부.

- 주 : 1) AIG에 대한 구제금융 1,500억 달러 중 400억 달러는 구제금융 7,000억 달러에 포함.
- 2) 재무부 7,000억 달러 구제금융 중 200억 달러는 FRB의 새로운 대출프로그램의 신용보증으로 사용, 174억 달러는 빅3 구제금융으로 투입.
- 3) 공적자금투입액 3조 2,290억 달러는 2007년 미국의 명목 GDP 13조 8076억 달러 대비 23.3%.

<유럽 국가별 공적자금 지원 규모>

(단위 : 억 유로)

구 분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영국	합계
지급 보증	4,200	3,200	1,000	2,000	850	200	-	11,450
자본 확충	800	400	-	-	150	-	473	1,823
감세 및 재정지출								2,000
합 계	5,000	3,600	1,000	2,000	1,000	200	473	15,273

자료 : 유럽은행, 각국 정부 발표 자료.

- 주 : 1) 영국의 자본 확충 473억 유로는 500억 파운드를 유로화로 환산한 금액.
- 2) 공적자금 1조 5,273억 유로는 유로지역의 2007년 명목 GDP 8조 9,310억 유로 대비 17.1% 수준.

< 중국, 한국, 일본의 공적자금 규모 >

구 분	지원 금액	GDP 대비 비중 (%)
중국 (억 위안 / %)	40,000	16.2
한국 (억 원 / %)	513,000	5.7
일본 (억 엔 / %)	616,000	11.9

자료 : 한국 정부, 중국 정부, 일본 정부 발표 자료.

□ 세계 경제 공조와 Great Moderation(경기 사이클의 단기화)

○ 전 세계적인 경제 정책 공조와 경기 사이클의 단기화로 이번 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경제의 회복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됨

- 미국 발 금융위기 발생 이후 G20 금융위기 공조 합의 등 전 세계적인 경제정책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G20 금융위기 공조 합의 :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0월 10일 금융기관 파산을 막고 유동성 위기에 몰린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로 하는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에 원칙 합의

· 강도 높은 부실금융기관 구제 : 지난 10월 미국 의회는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을 가결. 기 가결된 유로지역 전체 구제금융 규모는 GDP 대비 22.4%(2조 30억 유로) 정도임

· 글로벌 금리 인하 : 지난 12월까지 미국은 FOMC에서 Fed Fund 목표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인 0~0.25%까지 인하하였으며, 유럽중앙은행(ECB)는 2.5%, 일본은행은 0.1%, 한국은행은 3%까지 인하함

·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 :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국들은 경기 불황의 장기화 방지를 위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

- 미국에 대한 글로벌 경제 의존도가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 정책 공조는 미국발 경기 불황의 강도 및 영향을 약화시킬 것임

·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32%에서 2007년에는 25.3%로 낮아진 반면, 유럽은 19.9%에서 22.3%, 중국은 4.2%에서 6.0%로 증가

- 더욱이 최근 경기 하강 기간이 단축되는 반면 확장 기간은 확대되는 이른바 세계적인 경기 안정화 현상(Great Moderation)이 나타나고 있어, 위기의 단기 진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우 1919~1945년 경기 하강 기간은 18개월이었으나 1945~2001년 사이에는 10개월로 단축된 반면 경기 확장 기간은 35개월에서 57개월로 늘어남
- 결국 글로벌 경제 정책 공조와 Great Moderation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내 경제도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효과와 수출 환경 개선으로 조기 회복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임

< 미국의 경기 사이클 평균 기간 및 추이 >

(단위: 개월)

기간	회수	축소기	확장기
1854년~2001년	32번	17	38
1854년~1919년	16번	22	27
1919년~1945년	6번	18	35
1945년~2001년	10번	10	57

자료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DB.

□ 녹색 투자 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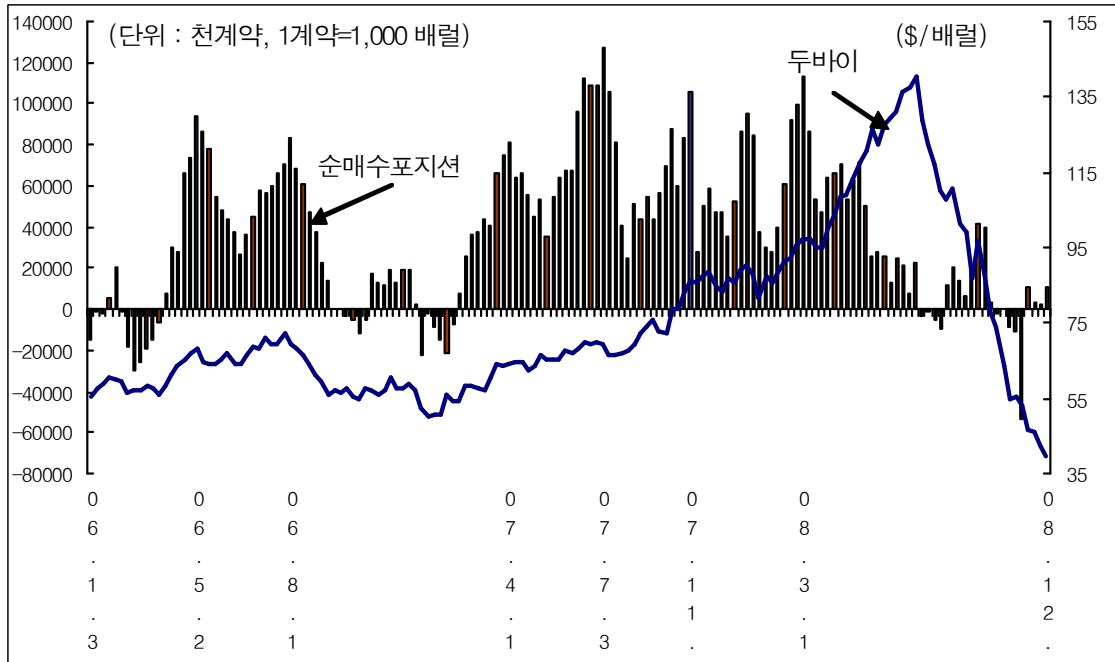
- 세계적인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환경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투자 붐이 일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가 진일보하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Green New Deal 정책 추진을 통해 경제 위기의 극복은 물론 미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 향후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재생 가능한 청정에너지원 개발에 투자하여 국내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미국에 에너지안보를 보장하며 이를 통해 고소득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획을 구체화
- 유럽은 2006년 ‘지속가능하고, 경쟁력과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한 유럽의 전략’을 시작으로 2008년 1월 “기후행동과 재생에너지” 대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녹색투자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에너지 정책 : 지속가능성, 에너지안보, 그리고 경쟁력을 주축으로 한 정책으로 회원국 간에 원유, 가스 공급 협력,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거래시장 확보를 추구
 - 기후행동 및 재생에너지 종합 정책 : 배출권거래제도의 확장과 회원국 간의 의무할당제 재구성, 배출권거래제도에 포함되지 않았던 회원국별 할당량 마련,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관련 법, 탄소포집과 저장, 환경 보조금에 관한 새로운 규칙 제정 등을 포함
- 일본은 ‘Cool Earth 50’이라는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후쿠다비전’에서 명확한 방향성과 실천 사항을 제시
 - 후쿠다비전 : 2008년 가을까지 배출권 거래 국내통합시장 시범 운영,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 2012년까지 절약형 전구전환과 에너지절약형 주택 의무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60~80% 감축 등 실천 사항을 제시
-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녹색성장을 주요 정책아젠다로 채택하고 있어 세계적인 녹색 투자 붐과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반도체 등 녹색 성장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문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큼
 -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녹색투자가 붐을 이루고 있으나 통합적인 전략 수립은 초기 단계여서 선진국의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통합 전략을 수립한다면 선진국과의 상호보완 또는 선진국들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 창출이 가능
 - 특히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반도체와 같은 분야는 녹색 성장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문으로 향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가 발생할 것임

□ 국제 원자재가 하락

- 2009년에도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 개선 등 국내 경제에 큰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2009년에는 세계 경기 동반 침체에 의한 수요 증가세 둔화, 국제 투기 자금 규제 강화 등으로 국제유가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 기대
 - 2009년 원유 수요 증가세의 둔화 : 2008년 8월 및 9월의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은 전월대비 각각 93만 b/d, 68만 b/d 감소하였고, 2개월 동안 156만 b/d 감소하였으나, 유가 하락세를 저지하지 못함
 - 투기 자금 규제 강화 : CFTC는 스왑 달러 등 투기 세력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¹⁾ 미 상원의 에너지·자원 위원회 공청회(9월 16일)와 미 하원 농업위원회에서 9월 18일 투기억제법안이 가결되는 등 투기자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유가 전망 : 미국 캠브리지에너지 연구소(CERA)의 2008년 12월 5일 자료에 의하면 2009년 WTI유는 배럴당 71달러, 두바이유는 66달러로 전망하고 있으며, 원유 수요 감소세가 확대될 경우에는 2009년 WTI 유가는 배럴당 50달러, 두바이유는 45달러로 전망하고 있음
 - 국제원자재 가격도 2009년에는 하향 안정화 : 국제유가와 마찬가지로 국제 원자재 가격도 2009년에는 세계 경기 동반 부진, 투기 자금 축소 등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를 포함한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은 무역수지, 기업 채산성 등의 개선 뿐 아니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등 국내 경제에 큰 호재로 작용
 - 무역수지 개선 : 한국은행은 2009년에 유가 하락 등으로 수출 감소보다 수입 감소가 더 커 180억 달러 정도의 무역수지 흑자를 전망
 - 기업 채산성 개선 :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이 국내 기업들의 원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채산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물가 상승 압력 완화 : 2008년에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하락세로 반전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1)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9월 12일)에서는 동 위원회가 과소 추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

< 두바이유가 추이와 국제투기자금 추이 >



자료 : 한국석유공사.

< CERA 유가 전망(2008. 12.5 전망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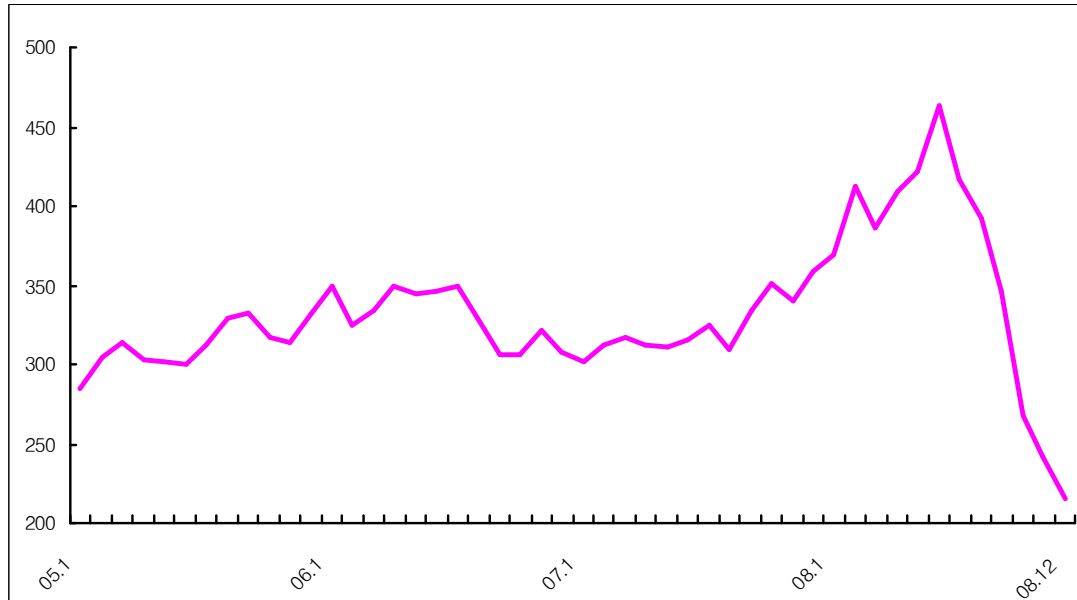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1분기/4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Dubai 유	고유가				65.00	97.10	79.75	
	기준유가	68.51	92.45	117.30	113.66	61.00	96.10	66.00
	저유가				57.00	95.10	45.00	
WTI 유	고유가				70.00	102.46	84.75	
	기준유가	72.16	97.82	123.80	118.22	66.00	101.46	71.00
	저유가				62.00	100.46	50.00	

자료 : CERA(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美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주 : 기간 중 일일 종가의 평균치임.

< CRB 지수 추이 >



자료 : FRB,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

구분	2007년 12/31	2008년						
		1/31	4/30	7/31	12/22*	연중최고(월 일)	연중 최고치 대비 하락폭(11/30일 현재)	
지수	CRB	358.71	369.46	409.27	416.40	215.35	473.97(7/3)	54.6%
유가	WTI(\$/배럴)	95.98	91.75	113.46	124.08	31.12	145.49(7/11)	78.6%
	두바이(\$/배럴)	89.06	87.18	106.28	123.46	40.44	140.70(7/4)	71.3%
곡물	소맥(\$/부셸)	8.1	8.8	6.7	6.5	5.7	12.3(2/27)	53.7%
	옥수수(\$/부셸)	4.3	4.7	5.7	5.4	3.8	7.1(6/27)	46.5%
	대두(\$/부셸)	11.7	12.3	12.9	14.0	8.9	16.5(7/7)	46.1%
귀금속	금(\$/온스)	833.92	925.99	877.55	914.07	849.00	1,032.7(3/17)	17.8%
금속	구리(\$/톤)	6,675	7,350	8,549	8,055	2,911	8,940(7/2)	67.4%
	알루미늄(\$/톤)	2,409	2,710	2,907	2,979	1,478	3,380(7/11)	56.3%
	니켈(\$/100 톤)	263	274	286	184	100	352(3/6)	71.6%
철강	철광석 ¹⁾ (\$/톤)	51	51	83	83	83	83	-

자료 : Bloomberg,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입업협회, CRB.

□ 새로운 신천지 개발 : 아프리카의 부상

○ 암흑의 대륙으로 불리던 아프리카가 최근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의 보고라는 점에서도 국내 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 중 30개국에 5%대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도 점차 축소되고 있어 세계로부터 새로운 신천지로 주목받고 있음

- 더욱이 아프리카는 천연자원의 보고로서 개발 및 투자 가치가 높아 세계 각국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며,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영향이 적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천연자원의 보고 : 세계 석유의 9%와 천연가스의 약 8%가 이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광물 생산량도 세계의 8%에 이르는데 특히 코발트, 다이아몬드, 백금은 세계 매장량의 각각 75%, 47%, 45%를 차지함²⁾

· 견실할 성장세 지속 예상 : 이처럼 천연자원 매장량이 많고 경제도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은 상대적으로 금융부문 발전이 늦어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덜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에도 견실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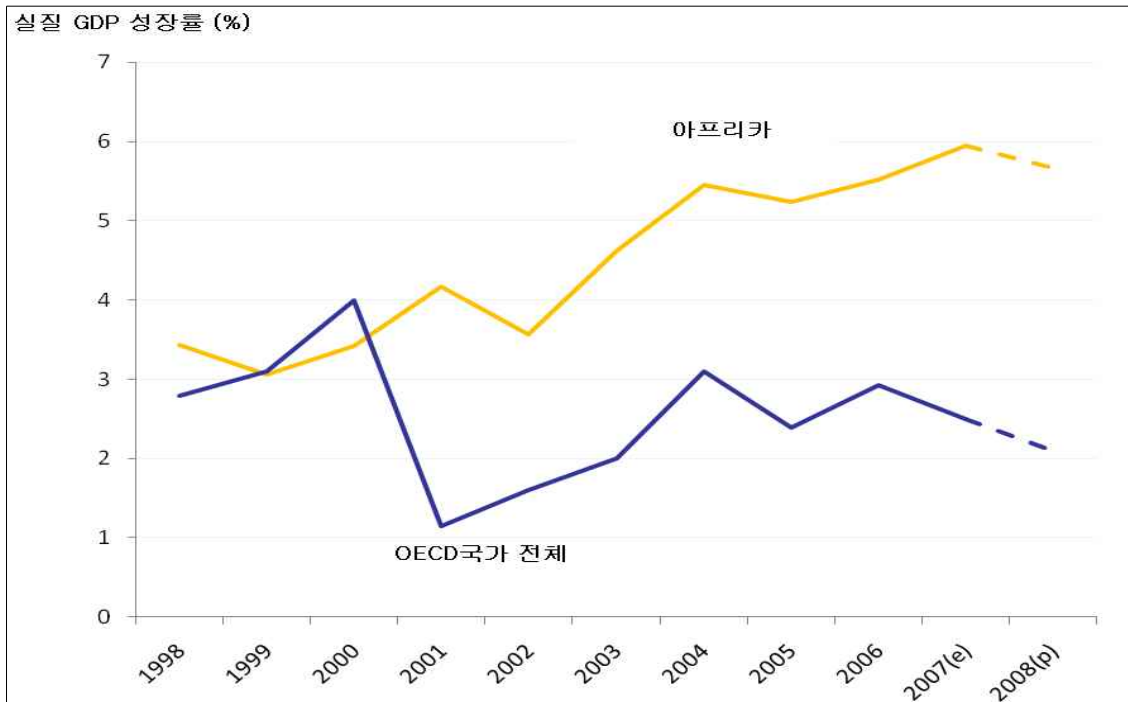
- 한편 아프리카의 경우 견실한 성장과 더불어 보유 천연자원에 대한 개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에게도 큰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음

· 플랜트 시장 : 아프리카의 경우 육상과 해상 유전 개발에 따르는 플랜트 수요, 송유관 프로젝트 등이 많이 존재하고, 향후 담수화시설, 환경시설, 발전소, 도로, 철도 등과 같은 SOC 개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내 수주기업들에게는 큰 기회의 대륙임

· 수출 시장 다변화에 기여 : 최근 아프리카의 발전 및 자원 가격의 급등에 따른 소득 증가로 내수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2) 서상현, 『아프리카의 역사와 정치경제』, 한국외대 아프리카연구소, 2007.

< 아프리카와 OECD 국가들의 실질 GDP 성장률 추이 >



자료 : The African Economic Outlook 2008, the Pulse of Africa, OECD, Jan 31, 2008.

주 : e는 추정치 그리고 p는 전망치를 의미.

< 북부아프리카 지역 (유엔기준) >

	인구 (명, 2007년)	면적 (km ²)	1인당 GDP (ppp \$, 2007년)	산업별 GDP 구성 (%)		
				1차	2차	3차
알제리	3,333만	238.1만	8,100	8.1	61	30.9
이집트	8,033만	100.1만	5,400	13.8	41.1	45.1
리비아	603.6만	175.9만	13,100	2.1	81.7	16.2
모로코	3,375만	44.6만	3,800	15	38.2	46.8
수단	3,937만	250.5만	2,500	31.5	35.7	32.8
튀니지	1,027만	16.3만	7,500	11.5	30	58.5
서 사하라	38만	26.6만	-	-	-	-

자료 : World Fact Book (<http://www.cia.gov>).

< 서부아프리카 지역 (유엔기준) >

	인구 (명, 2007년)	면적 (km ²)	1인당 GDP (ppp, \$, 2007년)	산업별 GDP 구성 (%)		
				1차	2차	3차
베냉	807만	11.2만	1,500	33.2	14.5	52.3
부르키나파소	1,432만	27.4만	1,200	29.4	19	51.7
카보베르데	42.3만	0.4만	7,000	9.3	16.9	73.9
코트디부아르	1,801만	33.2만	1,800	22.7	26.3	51
감비아	168만	1.1만	800	32.8	8.7	58.5
가나	2,293만	23.9만	1,400	37.3	25.3	37.5
기니	994만	24.5만	1,000	22	40.5	37.6
기니비사우	147만	3.6만	600	62	12	26
라이베리아	319만	11.1만	500	76.9	5.4	17.7
말리	1,199만	124만	1,200	45	17	38
모리타니아	327만	103만	1,800	25	29	46
나이저	1,289만	126.7만	700	39	17	44
나이지리아	1억 3,503만	92.3만	2,200	17.6	53.1	29.3
세네갈	1,252만	19.6만	1,700	13.1	20.6	66.3
시에라리온	614만	7.1만	800	49	31	21
토고	570만	5.6만	900	40	25	35

자료 : World Fact Book (<http://www.cia.gov>).

< 남부아프리카 지역 (유엔기준) >

	인구 (명, 2007년)	면적 (km ²)	1인당 GDP (ppp \$, 2007년)	산업별 GDP 구성 (%)		
				1차	2차	3차
보츠와나	181만	60만	14,700	1.6	51.5	46.9
레소토	212만	3만	1,500	15.2	45	39.7
나미비아	205만	82.5만	5,200	10.6	30.8	58.6
남아프리카 공화국	4,399만	121.9만	10,600	2.2	27	70.9
스와질랜드	113만	1.7만	4,800	11.8	45.8	42.3

자료 : World Fact Book (<http://www.cia.gov>).

< 중부아프리카 지역 (유엔기준) >

	인구 (명, 2007년)	면적 (km ²)	1인당 GDP (ppp \$, 2007년)	산업별 GDP 구성 (%)		
				1차	2차	3차
앙골라	1,226만	124.6만	6,500	9.6	65.8	24.6
카메룬	1,806만	47.5만	2,300	44.3	15.9	39.8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436만	62.2만	700	55	20	25
차드	988만	128.4만	1,600	22.2	47.2	30.6
콩고	380만	34.2만	3,700	5.6	57.1	37.3
콩고민주주의 공화국	6,575만	234.5만	300	55	11	34
적도 기니	55만	2.8만	44,100	2.8	92.5	4.6
가봉	145만	26.7만	13,800	5.8	58.8	35.5
상투메프린시페	19만	0.1만	1,200	14.8	14.2	71

자료 : World Fact Book (<http://www.cia.gov>).

< 동부아프리카 지역 (유엔기준) >

	인구 (명, 2007년)	면적 (km ²)	1인당 GDP (ppp \$, 2007년)	산업별 GDP 구성 (%)		
				1차	2차	3차
브룬디	839만	2.7만	\$800	44.9	20.9	34.1
코모로	71만	0.2만	\$600	40	4	56
지부티	49만	2.3만	\$1,000	3.2	14.9	81.9
에리트리아	490만	12.1만	\$1,000	21.7	22.6	55.7
에티오피아	7,651만	112.7만	\$700	48.8	12.9	38.3
케냐	3,691만	58.2만	\$1,600	23.8	16.7	59.5
마다가스카르	1,944만	58.7만	\$1,000	27.3	15.8	56.8
말라위	1,360만	11.8만	\$800	36.3	18.6	45.1
모리셔스	125만	0.2만	\$11,900	4.8	25	70.1
모잠비크	2,090만	80.1만	\$900	23.1	30.2	46.7
르완다	990만	2.6만	\$1,000	38.2	20.1	41.7
세이셸	8만	0.04만	\$18,400	2.4	25.6	72
소말리아	911만	63.7만	\$600	65	10	25
탄자니아	3,938만	94.5만	\$1,100	42.8	18.4	38.7
우간다	3,026만	23.6만	\$1,100	30.2	24.7	45.2
잠비아	1,147만	75.2만	\$1,400	17.6	26	56.5
짐바브웨	1,231만	39만	\$500	16.7	21.6	61.6

자료 : World Fact Book (<http://www.cia.gov>).

II. 국내

□ 튼튼한 제조업 기반

-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세계 금융산업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다시 국가 경쟁력의 주요 잣대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커 한국은 튼튼한 제조업 기반을 잘 활용한다면 제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임
- 한국은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등 세계 1등 산업군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등 여전히 제조업 기반이 견실함
 - 한국의 경우 제조업 GDP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다고 할 수 있는데, 1990년대 이후 다시 제조업 GDP 성장률과 경제성장률과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제조업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음
 - 또, 최근 서비스업의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2000년 이후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서비스업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1991년 0.5% 수준에서 2006년에는 1.8%로까지 확대되면서 R&D스톡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R&D스톡의 효율성도 제고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메모리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이상 2007년 기준 세계 시장점유율 1위), 휴대폰(2위), 자동차(5위), 철강(6위), 일반기계(2006년 기준 9위) 등 제조업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신규사업 투자 확대를 유도할 경우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
 - 국내 제조업이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노력을 경주한 결과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이 차례차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 부문이 향후에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가능성이 큼
 - 더욱이, 제조업과 서비스, IT 등 타 산업 또는 타 제조부문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 부문을 창조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나아가 제조업이 여전히 대규모의 고급일 자리를 제공하는 부문이라 할 때 경기 침체에 따르는 부작용을 완화해주는 역할도 기대 가능

< 경제성장률 및 제조업 GDP 증가율 변화 추이 >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년	2001~2005년
경제성장률 (A)	7.13%	9.02%	5.72%	4.74%
제조업 GDP 증가율 (B)	16.05%	12.04%	7.97%	7.80%
B - A	8.92%p	3.02%p	2.25%p	3.04%p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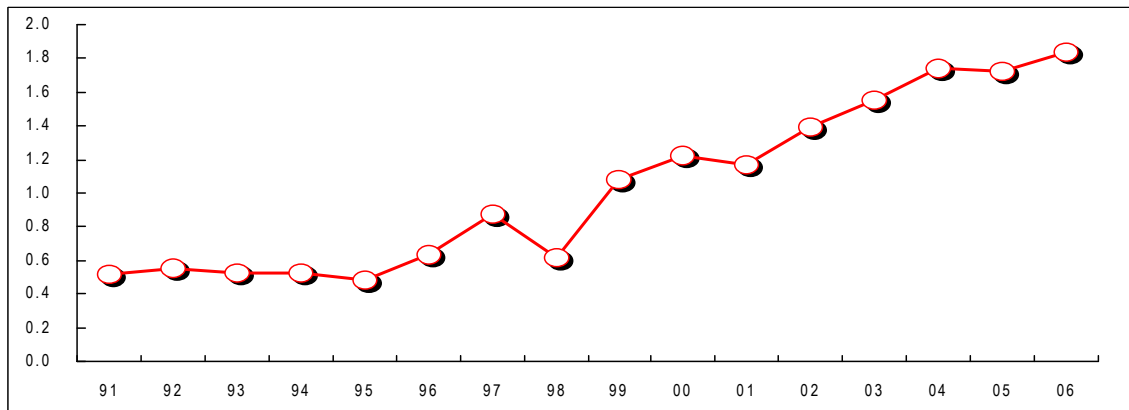
< 제조업, 서비스업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기여율 >

구분	1971~1980년	1981~1990년	1991~2000	2001~2005년
제조업	26.0%	25.7%	33.1%	44.3%
서비스업	48.1%	49.5%	49.8%	40.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제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 추이 >

(%)



주: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를 활용하여 가공.

< 제조업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 추이 >

구분	1991	1996	2001	2006
제조업	0.51%	0.64%	1.17%	1.84%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각년호.

< 제조업 부문 기간별 R&D스톡과 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 >

구분	1991~1997	1998~2006	1991~2006
R&D 투자 증가율	29.9%	19.2%	23.5%
R&D스톡과 생산성과의 상관관계	0.80	0.92	0.96

주 1)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를 활용하여 가공.

2) 표 안의 수치는 1인당 R&D스톡량과 1인당 부가가치액 사이의 상관관계수임.

□ 수출시장 다변화

- 세계 경기 동반 침체로 유일한 성장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나, 수출시장 다변화가 진전되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위기극복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국의 경우, 지역별, 상품별 수출 다변화 뿐 아니라 수주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는 등 수출 다변화가 점차 진전되고 있음
 - 지역별 다변화 : 1980년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미국과 일본의 점유율이 14%p, 10.3%p 감소한 반면, 중국 시장의 급성장(22%p)과 아세안(3.9%p), 중남미(4.1%p), CIS(3%p) 시장이 균형있게 성장하는 추세
 - 상품별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 1980년대 주요 수출 상품이던 섬유, 철강, 가전제품의 비중이 낮아지고,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석유화학제품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며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 수주산업의 높은 수출 증가세 : 지난 10년간 토목 10배, 건축 5.9배, 조선 4.9배, 플랜트 12.9배 등 높은 수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
 - 더욱이 국내 수출업체들의 기술 경쟁력 강화 노력이 국내 수출 경쟁력을 꾸준히 제고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초절전 50nm급 1Gb DDR2 SDRAM, 북해 극지 운항 차세대 드릴선 등 세계 최초 기술 뿐 아니라 차세대 의료영상정보 처리 솔루션, 대규모 수처리용 보강막 및 침지식 모듈 등 세계 최고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어 이들 기술이 향후 수출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다변화에 기여할 것임
 - 수출시장 다변화의 진전은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 지역의 경기 침체에 따르는 수출 감소 효과를 경감시켜 줄 것이며, 꾸준한 기술 경쟁력 노력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가능케 해 줄 것으로 기대됨
 - 향후 중동, 아세안 등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가 약한 지역에 대한 수출 마케팅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 정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임
 - 더욱이, 기 개발된 세계 최고 및 최초 기술의 상용화 개발 투자에 박차를 가할 경우, 불황기에도 새로운 틈새시장을 개발하고 선점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지역별 수출 비중 변화(단위: %) >

구분	중국	미국	일본	EU	아세안	중남미	중동	CIS
1980	0.1	26.3	17.4	16.7	6.5	2.8	14.5	0
1985	0.1	35.5	15.0	11.8	5.1	3.6	9.5	0
1990	0.9	29.8	19.4	15.4	8.0	3.2	4.0	0
1995	7.3	19.3	13.6	13.0	14.4	5.9	3.9	1.4
2000	10.7	21.8	11.9	13.6	11.7	5.4	4.4	0.8
2005	21.8	14.5	8.4	15.4	9.6	5.3	4.3	1.9
2006	21.3	13.3	8.2	14.9	9.9	6.3	4.4	2.2
2007	22.1	12.3	7.1	15.1	10.4	6.9	5.3	3.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 주요 상품별 수출 비중 변화(단위: %) >

구분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컴퓨터	선박	철강	가전	석유화학	섬유
1980	2.5	0.5	0.3	0.3	3.5	10.4	10.4	1.5	18.1
1985	3.2	1.9	0.6	1.8	16.7	9.2	9.2	1.4	15.8
1990	7.0	3.0	0.8	3.9	4.4	6.7	6.7	2.0	13.7
1995	14.1	6.7	1.2	3.8	4.5	6.0	6.0	4.8	4.9
2000	15.1	7.7	4.6	8.5	4.9	4.6	4.6	5.6	3.6
2005	10.5	10.4	9.7	5.0	6.2	5.9	5.9	7.3	1.3
2006	11.5	10.1	8.3	3.9	6.8	6.0	6.0	7.4	1.0
2007	10.5	10.0	8.2	3.7	7.5	6.2	6.2	7.8	0.8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

< 해외수주 현황 >

(단위: 백만\$, 만GT)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토 목	521	1,591	2,765	865	539	402	806	836	1,532	5,232
건 축	1,395	1,944	732	721	605	532	874	1,226	3,433	8,201
플랜트	1,954	5,414	1,703	2,665	4,829	2,491	5,182	8,263	10,920	25,244
조 선	1,000	1,272	1,938	1,083	1,277	2,819	2,574	1,930	3,366	4,999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주: 조선 수주는 국내외 합계.

< 세계 최고·최초 10대 기술 >

구분	내 용
세계 최초	- 초절전 50nm급 1Gb DDR2 SDRAM - 북해 극지 운항 차세대 드릴선 - TFT-LCD용 TM 블랭크마스크 -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차량
세계 최고	- 아토르바스타틴의 신규 제법 및 생산화 공정 - 교류 구동형 AC LED - 대규모 수처리용 보강막 및 침지식 모듈 - LCD용 8세대 스크리빙 M/C - PDP 필터용 전자파 차폐 Mesh on Glass - 차세대 의료영상정보 처리 솔루션

□ 한국형 녹색뉴딜 : 4대강 유역 개발과 관광산업 대개발

○ 경제위기 극복과 신성장동력 발굴을 목적으로 한 ‘한국형 녹색뉴딜’ 정책은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환기시킬 뿐 아니라 신기술 및 상품 개발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8월 15일 녹색성장을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공언하였으며, 이후 최근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4대강 유역개발, 경인운하 등을 포함한 녹색뉴딜로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함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 본 계획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하기 위함임

· 4대강 살리기 : 본 프로젝트는 국토의 대동맥인 4대강 유역을 국가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인데 경기진작 효과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에 고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녹색뉴딜”사업으로 간주

· 경인운하 : 강과 바닷길을 이어 물류 및 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인 수자원공사 주도로 사업 방식을 변경하여 2011년 완공 예정

- 한편 국내 환경 투자와 환경시장 규모가 급증하고 있고, 세계 환경시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환경시장의 규모 증가 : 환경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04년 21.4조 원에서 2005년 약 23.9조 원으로 11.5% 증가

· 국내 환경 투자 급증 : 정부의 R&D 예산 가운데 환경 부문 R&D 예산은 2003년 3,070억 원에서 2007년 4,365억 원으로 42% 증가

· 세계 환경시장 지속 증가 예상 : 미국제환경비즈니스(EBI: 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사의 추계에 따르면, 세계 환경비즈니스 시장은 1996년 4,741억 달러에서 2006년 6,920억 달러로 1.5배 확대됨

- 국내외 환경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를 배경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형 녹색뉴딜 정책이 제대로 운용된다면 ‘환경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1990년대 한국에 불었던 IT버블이 2000년대 초반에 IT와 관련된 주식의 가치하락으로 끝났지만 이후 IT산업이 경제성장의 주역이 된 것은 IT버블이 ‘좋은거품’으로 작용한 예라는 점에서 볼 때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각종 논란은 있으나 새로운 경제 성장의 주역이 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

□ R&D 혁신 역량 결집

○ R&D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술개발 성과도 극적으로 개선되는 등 국가 R&D 혁신 역량이 크게 증대되어 경제 위기 극복 및 신성장동력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의 R&D 투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 GDP 대비 R&D 비중 세계 2위 : 지난 10년간 R&D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3.23%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임

· R&D 투자 증대 노력 지속 : 이명박 정부는 지난 12월 16일 2009년 새해경제운용계획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2009년도 연구개발투자에 2006년 정부 부담 연구개발비 6.6조 원의 2배 수준인 12.3조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힘

- 이처럼 R&D에 대한 집중 투자 결과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논문 발표 건수, 기술수출액과 같은 투자 성과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난 10년 간 특허 출원은 1.8배, 특허 등록은 4.9배, 논문 발표는 3배 증가
· 기술수출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에는 약 19억 달러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0년 2억 달러의 약 10배 규모에 달하는 수준임

- 더욱이 세계 1등 상품 수가 세계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세계 1위 상품 수는 2004년 78개, 2005년 86개, 2006년 121개, 2007년 127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세계 1위 상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49.1%, LNG 운반선 80.5%, 해수담수설비 43%, 플래시 메모리 53.7%, 전자레인지 22.2%, CD-ROM 드라이버 42% 등임

- 결국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국가 R&D 혁신 역량이 상품 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힘이 결국 한국 경제를 더 한층 성숙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GDP대비 R&D비용 >

(단위: %)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미국	2.58	2.62	2.66	2.74	2.76	2.66	2.66	2.59	2.62	2.62
일본	2.87	3.00	3.02	3.04	3.12	3.17	3.20	3.17	3.33	-
독일	2.24	2.27	2.40	2.45	2.46	2.49	2.52	2.49	2.48	2.51
프랑스	2.19	2.14	2.16	2.15	2.20	2.23	2.17	2.15	2.13	2.12
영국	1.81	1.80	1.87	1.86	1.83	1.83	1.79	1.73	1.78	-
한국	2.48	2.34	2.25	2.39	2.59	2.53	2.66	2.85	2.98	3.23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7년.

<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

(단위: 건)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출원	92,734	75,188	80,642	102,010	104,612	106,136	118,652	140,115	260,921	166,189
등록	24,579	52,900	62,635	34,956	34,675	45,298	44,165	49,066	73,512	120,790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7년.

< 논문 발표 현황 >

(단위: 편)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7,815	9,568	11,076	12,245	14,673	15,902	18,830	19,328	23,089	23,286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7년.

< 기술 수출액 현황 >

(단위: 백만\$)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규모	163	141	193	201	619	638	816	1,416	1,625	1,897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7년.

< 연구개발비의 정부 대 민간 부담 비율 추이 >

(단위: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6
정부부담	36.3	19.3	15.9	24.2	27.6	24.3	24.3
민간부담	63.7	80.5	84.1	75.7	72.4	75.0	75.4
해외부담	0.0	0.2	0.0	0.0	0.1	0.7	0.3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주요통계요람, 2007년.

□ 한민족 해외 역량

- 중국의 화상(華商)과 인도의 인상(印商)처럼 한국도 한민족의 해외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면 현재의 금융위기 극복은 물론 지속 성장의 교두보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중국, 인도의 경우 해외 교포경제인 네트워크인 화상(華商)과 인상(印商)들의 힘을 빌려 고도성장하고 있는 좋은 사례임
 - 중국의 초고속 성장과 시장경제화의 배경에는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6천여 만명의 화상(華商)이 있으며, 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0%를 담당
 - 최근 고속성장하는 인도를 떠 바치는 힘도 인상(印商)임
 - 한국도 세계 180여국에서 1만 7천여 동포기업이 활약 중이며, 한국을 알리는 외교관 겸 '21세기 보부상'으로서 한상네트워크를 넓혀가고 있음
 - 제7차 세계한상대회에 참가한 500여 동포기업이 지난해 올린 매출액은 347억 달러로 이는 우리나라 GDP의 3.5%에 해당하는 규모임
 - 현재 세계 180여 개국에 700여만 명(남북 인구의 약 10%)의 해외 동포 존재
 -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한상들의 힘을 국가 경제 발전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한상들의 국내 투자 규모는 2007년 4,318만 달러로 2006년(1억 1,251만 달러)보다 61.7%나 감소하는 등 최근 급감하고 있음
 - 한상대회에 참가한 449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0%는 '모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했지만 이들이 평가한 한국의 투자 환경은 5점 만점에 2.75점에 그침
 - 따라서 세계 180여국의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경제위기에 빠진 모국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동포기업도 성장하는 상생(win-win)의 비즈니스모델이 구축은 향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
 -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재일교포들이 약1조원을 모국에 송금하여, 위기극복에 도움을 줌으로써 상부상조하고 '윈윈'(win-win)하는 모범을 보임

- 올해 연초에 비해 원-달러 환율이 40% 이상 평가 절하된 상태이므로, 해외의 동포기업들이 모국에 적극 투자하고, 우리 기업은 좁은 국내시장을 벗어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함
-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송금 한도를 확대하고, 국내 송금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원-달러 환율도 안정시키고 해외동포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확대해야 할 것임

< 주요 국가별 동포기업 현황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독일	기타	합계
10,283	772	155	115	3,860	528	82	72	107	1,369	17,343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韓商들의 국내투자 추이 >

(단위: 만 달러)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49,969	29,372	11,251	4,318

자료: 재외동포재단.

주: 한상대회에 참석한 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이부형 연구위원 외 (3669-4011, lbh@hri.co.kr)

주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경상수지 2달 연속 흑자

○ 11월 중 경상수지는 서비스 수지가 소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상품수지와 소득수지의 흑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전월보다 26.9억 달러 줄어든 20.6억 달러 흑자를 나타냄

- 상품수지는 세계 경기 동반 침체의 여파로 수출 감소 폭이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며 흑자규모가 전월보다 16.4억 달러 줄어든 9.9억 달러 흑자를 보임
- 반면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 전월에 비해 0.8억 달러 늘어난 1.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한편 소득수지는 대외배당금 지급이 감소하였으나 이자 지급은 증가하여 전월의 1.4천만 달러 흑자에서 7백 2십만 달러 흑자로 흑자 규모가 축소됨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3/4	4/4	1/4	2/4	3/4	10월	11월	
경기	경제성장률	5.1	5.0	5.1(1.5)	5.7(1.6)	5.8(0.8)	4.8(0.8)	3.8(0.5)	-	-	
	수요	소비재판매	4.1	5.3	7.1	4.5	3.9	2.5	1.1	-3.7	-5.9
		설비투자추계	8.9	8.6	0.7	9.2	-0.9	0.1	6.1	-7.7	-18.0
		건설수주	9.0	19.3	-5.6	29.5	-3.9	-6.1	-22.8	-23.9	-35.4
		수출	14.4	14.1	9.4	18.2	17.4	23.1	27.1	8.0	-19.0
	공급	광공업생산	8.4	6.8	5.9	10.8	10.6	8.6	5.6	-2.3	-14.1
		취업자수 (만명)	2,315	2,343	2,361	2,358	2,305	2,387	2,373	2,385	2,382
		실업률	3.5	3.2	3.1	3.0	3.4	3.1	3.0	3.0	3.1
		수입	18.4	15.3	7.3	25.9	28.9	30.5	43.0	10.3	-14.9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54	60	44	32	-52	-1	-86	47	21
무역수지 (억\$)		161	146	45	27	-65	3	-80	-20	1	
물가	생산지물가	0.9	1.4	1.2	3.0	5.1	9.0	11.3	10.7	7.8	
	소비지물가	2.2	2.5	2.3	3.4	3.8	4.8	5.1	4.8	4.5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 제곱등

○ (해외 금융 시장) 미 국채 금리 소폭 상승

- 금리: 신규실업수당 청구자수의 예상치 하회 및 미 연준의 MBS 매입 프로그램 실행 발표 등의 영향으로 전주말 대비 상승 (국채 10년물 : 2.13→2.21%)
- 환율: 유로화는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수가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달러화에 대해 약세를 보인 반면, 엔화는 글로벌 주가 상승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되면서 달러화에 대해 소폭 약세 (\$/€ : 1.4029→1.3972, ¥/\$: 90.82→90.64)

○ (국내 금융 시장) 원화 환율 제곱등

- 주가: 연초에 따른 투자심리가 호전된 가운데 대형 건설주와 조선주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전주말 대비 대폭 상승 (1,117.9→1,157.4)
- 금리: 11월 광공업생산 증가율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면서 전주말 대비 급락 (국고채 3년 수익률: 3.68→3.42%)
- 환율: 주초반 당국의 연말 종가관리 개입 가능성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다음주 초 발표될 12월 외환보유액이 2000억 달러를 밑돌 것이란 예상에 은행권을 중심으로한 적극적 매수세로 전주말 대비 상승 (1,299.0→1,321.0)

○ (전망) 원화 환율 단기 급등으로 조정에 따라 소폭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2007		2008				2009	
		3/4	4/4	1/4	2/4	3/4	4/4	12.26	1.2 ¹⁾
국내	거래소 주가	1,946.5	1,897.1	1,703.9	1,674.9	1,448.1	1,124.5	1,117.9	1,157.4
	국고채3년(%)	5.46	5.74	5.10	5.90	5.74	3.41	3.68	3.42
	원/달러	915.1	936.1	990.4	1,046.0	1,207.0	1,259.5	1,299.0	1,321.0
해외	DOW	13,896	13,265	12,263	11,350	10,850	8,776.4	8,516	8,776
	Nikkei	16,786	15,308	12,526	13,481	11,259	8,860	8,740	8,860
	미국채10년(%)	4.59	4.02	3.87	3.97	3.82	2.21	2.13	2.21
	일국채10년(%)	1.69	1.51	1.45	1.60	1.47	1.18	1.21	1.18
	달러/유로	1.4267	1.4593	1.5788	1.5848	1.4092	1.3972	1.4029	1.3972
	엔/달러	114.80	111.65	99.70	106.22	106.11	90.64	90.82	90.64
	두바이(\$/배럴)	76.64	89.06	97.66	136.65	90.60	34.66	34.66	34.66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12.31) 기준.